

교환학생 보고서

소속전공	기계설계공학과	학 번	200**556	성 명	박종빈
주 소		휴대전화		메일주소	
파견국가	독일	파견대학	헤일브론	파견학기	2015년 2학기
소요경비	정확히 1040만원 (비행기 값 포함)				
주거	Flat생활 Blumhardtstraße12/1, Heilbronn, Deutschland 매달 350유로 (보증금은 매 경우마다 다름 - 본인 같은 경우 2달치 내고 마지막달 안냈음)				
룸메이트	네덜란드 1명, 독일 1명, 대한민국 1명				
기숙사 내 한국인	울산대2명(4명 중), 경북대2명(3명 중), 금오공대1명(5명 1명)				
파견대학 정보	캠퍼스가 작습니다. 아름답지도 않지만 많은 국적의 교환학생들이 있어, 나름대로의 캠퍼스 로망이 있습니다.				
파견대학 국제 교류부서	뭐든지 물어도 관심을 만큼 친절하십니다.				
주말 및 여가활동	맥주가 쌉니다. 매일 밤마다 맥주 먹었고, 매주 마다 파티 있습니다.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과 밥도 만들어 먹고 합니다. 매주 이 회 정도 축구도 합니다. 여행 많이 다녀요.				
멘토 또는 교류도우미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전공	기계과지만 자동차공학으로 되었습니다. 가면 자동으로 배치됩니다. 심할 경우 전자과 학우가 경영으로 편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업 스케줄	인텐시브라 해서 한 주에 끝내거나 며칠하고 끝내는 수업이 많아 그렇게 빡빡하지 않습니다.				

학생할인 관련	할인.... 기억에 남는 할인은 없습니다. 아 여행을 다닐 때 어떤 곳이던 관광지든 학생할 인 있더라구요.
ISIC카드 활용	물론 없습니다.
영어공부	그냥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같이 갔던 동생한테도 많이 배웠습니다.
여행	12개국 정도 갔습니다.
교통	하일브론에서는 트램(지상철), 버스 주로 이용했고(지하철 없습니다). 택시는 정말 비쌉 니다. 참고로 여기는 콜택시로 운영됩니다. 시매스터 티켓 줍니다. 공짜로 타세요. 티켓 검사하니까 들고 다니세요(잘 안합니다).
날씨	여름에는 햇빛이 많다고 하더라구요. 겨울엔 햇빛 보기 힘듭니다. 항상 구름 끼었어요.
해외인턴	수업 시간에 한번 씩 회사들이 와서 홍보하더라구요. 인턴 해보라구.
추신	집밥 백선생님 보면서 요리 실력 많이 늘더라구요. 레스토랑은 비싸거든요.
보완점	기숙사.